

# “꿈·사랑·고독·자아 ‘서시’에 담긴 4개 주제로 전시 꾸려”



윤준영 작 '꿈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적막해졌다'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미완의 청춘' 기획한 광주시립미술관 인턴 큐레이터 4명

전시·수집·연구...1년 실무 결산  
박성완·윤준영·최나래 등 초대  
청년 운동주의 삶과 고민 담아  
“사람과 교감하는 기획하고 싶어”



'미완의 청춘' 전을 기획한 광주시립미술관 인턴 큐레이터 한서우·김수정·박명지·임미래씨. (왼쪽부터)

전시장 밖에서 종종 걸린 박성완 작가 작품들은 골목길, 모텔, 양림동의 풍경 등 일상적 모습을 담고 있다. 윤준영 작가의 '꿈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적막해졌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아련해진다. 셋노란 집이 등장하는 최나래 작가의 작품은 환상적이며 동화적이다. 펠크파마의 설치 작품에선 무언가를 끊임 없이 만들고 있는 작가가 이야기를 건넨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중인 '미완의 청춘'전에 초대받은 작가들의 작품은 흥미로웠다. 이들을 초대한 이는 광주시립미술관 인턴 큐레이터 김수정, 박명지, 임미래, 한서우씨다.

공립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가 미술 관련 인력을 키우는 일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공모 과정을 거쳐 인턴 큐레이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예연구실, 교육장차지원실, 하정웅 분관 등에서 근무한 참가자들은 1년 동안 학예연구사들의 지도 아래 전시, 교육, 수집, 연구 등 미술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4명의 인턴큐레이터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실무 연수 결과 보고전으로 올해 탄생 100년을 맞은 '청년 운동주'에 주목했다. 이들은 그의 대표작 '서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네 개의 주제를 정했다. 청년 운동주가 겪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운명적 '고독', 어려운 가운데서도 존재했던 '사랑',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자 부단히 지키려 했던 '자아', 그리고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꿈'이다.

스물 아홉에 세상을 떠난 운동주는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삶의 의미와 인생을 고민하는 청년이었고 아티스트였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예비 큐레이터들은 동질감을 느껴며 전시를 준비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광주 여성재단 '페미니스트의 물건'전 등을 기획했던 박명지(30)씨는 '꿈'에 맞춰 서양화가 박성완을 초청했다. "우리는 늘 꿈을 꾸지만 그 꿈이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박성완 작가는 안주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그려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생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꿈꾸는 그가 소소한 일상을 끊임없이 그려나가는 모습에서 그의 꿈은 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느꼈죠."

박씨는 대작 대신, 오랜 기간 그의 꿈의 조각들을 만날 수 있는 소품 위주로 모두 31점을 걸었다. 박 작가가 그려낸 일상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독'을 테마로 잡은 한서우(27)씨는 한국화가 윤준영 작가를 초청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전시장 등에서 보았던 윤 작가의 작품이 가장 먼저 생각났기 때문이다.

"작가님이 자신의 작업은 늘 불안감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독의 다른 이름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를 사는 개인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푸른색과 달은 희망을 상징해요. 작가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늘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이 희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지난해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실무연수를 받았다.

조선대 시각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 도슨트, 총장미디어산업센터 미디어아트 전시 시범 사업 '온고지신' 보조 큐레이터 등을 맡았던 임미래(24)씨는 이제 막 '시작하는' 최나래 작가에게 주목했다.

"무엇보다 강렬한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가 푸쉬킨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 삶을 견디어 내며 극복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집은 기쁨, 슬픔,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이 표출된 공간입니다."

유일하게 설치 작품을 전시한 김수정(27)씨는 퍼포먼스 예술가 펠크파마를 초대했다. 임씨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조선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수료했다.

"설치 작품은 평면과 달리 위험 부담이 따르죠. 자신의 작업실에서 묵묵히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작업을 선보였는데 그 게 바로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명의 예비 큐레이터들은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싶을까.

박명지씨는 "세상과 연결되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다양한 기획전을 열어보고 싶다"고, 김수정씨는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면서 설치와 조각에 관심이 많아졌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고 했다. 임미래·한서우씨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작품에 관심이 많다. 관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를 꾸려보고 싶다"며 "아직도 미술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리는 즐거움 전시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딸과 함께...황순칠 '그림이 함께하는 음악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시골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악기에 관심이 많았던 황순칠 작가는 고교 졸업 후 광주로 올라와 한국화를 공부할 때 처음 대금을 배우며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된 그는 태교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하모니카를 다시 꺼내 동요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살이 되었을 때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피리,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를 배웠고, 피아노는 늘 그와 함께 했다.

아이가 여섯 살 되던 해부터는 그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기 시작했다. 작업실에 화폭을 펼쳐놓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 진행한 행사였다. 김 광복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장, 대금연주자 원장현, 첼리스트 윤소희, 기타리스트 서만재 등 많은 연주인들은 소박한 무대를 빛내주었다. 딸 상희양은 광주예고에 진학,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정식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열어왔고 올해 13번째 '그림이 있는 배고 황순칠 음

악회'를 진행한다. 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박대식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이순남씨의 시낭송 '선물'에 이어 딸 상희(광주예고 2년) 양이 쇼팽의 '에튀드 작품 10',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들려준다. 박의혁은 '엄마야 누나야', '고향의 봄', '풍수지단'을 연주하며 재즈비틀리스트 고아라,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씨와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이 엔리코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등을 들려준다. 황 작가는 피아노로 삼송 '눈이 내리네'를 선사한다.

그는 5년전부터 화순 운주사의 전통전탈을 화곡에 담고 있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8m x 5m 규모의 대형 '와불' 그림이 무대 배경으로 설치되며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들도 빔 프로젝트로 보여줄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백주영&클래시칸 앙상블'... 탱고를 만나다

11일 광주문화회관  
해설자 장일범



백주영

장일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특별기획공연으로 '백주영&클래시칸 앙상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음악에 빠질 확률'을 준비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백주영&클래시칸 앙상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음악에 빠질 확률'은 '2017 지방공공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이다.

"젊은음악, 재미있는 클래식"을 모토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의 단체로, 2007년 뉴욕 줄리아드, 맨해튼 음악대학 출신의 연주자들로 시작됐으며,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화음악콘서트, 음악극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앙상블이 기획한 대륙별 클래식 '남아메리카'편으로, 클래식을 기초로 20세기 클래식 음악계를 강타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탱고'를 의미하는 '누에보 탱고'를 개

척한 피아졸라의 다양한 작품을 클래식앙상블의 스트링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피아졸라의 '망카', '오중주를 위한 협주곡', '그랜드 탱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리베르 탱고' 등이 연주된다.

특히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5대 국제공쿠르를 석권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협연한다. 백주영은 뉴욕의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도쿄 산토리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협연과 독주회를 가졌다.

공연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탱고의 감각적 선율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설은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맡는다. 장 씨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석사과를 졸업하고,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을 진행중이며,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35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푸른연극마을 '안티고네' 공연 6~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 인물 안티고네 생애와 현실 속 인간의 존엄에 대해 되새겨보는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환)의 '안티고네'가 무대에 오른다.

6일~7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

이번 '안티고네'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2017 공연장상주단체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안티고네' 공연은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는 오빠 에테

오클레스, 폴리네이케스와 왕위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다 죽는 비극을 맞이한다.

'안티고네' 작품은 틀린 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수많은 이들의 병축한 무관심을 두려워했을 안티고네의 용감함과 인간의 존엄과 삶에 대한 질문을 대중들에게 던진다.

이번 작품은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크레온역에 오성환, 안티고네역에 김수현, 임현수, 주현지, 하이몬역에 장윤호, 이스메네역에 오세희 등이 출연한다. 무료관람. 문의 010-2877-4403, 062-670-7943.

한편, 푸른연극마을 2차 퍼블릭프로그램(시민연극프로젝트)으로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날', 'B사



김과 러브레터' 등을 새롭게 엮은 '낭독극-현진건 특별선' 이 오는 17일 오후 4시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